

고1  
공통국어1  
해냄

2026 고1 공통국어1 해냄 | 1(1) 방문객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방문객」은 행간 걸침, 구절의 반복, 종결 어미의 반복, 상징적 시어의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깨달음과 만남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전달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와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 주제 의식을 묻는 문제,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시에서 만남과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정리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문학 소통의 특성과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종, 「방문객」

(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섬」

(다) 문학 소통은 일차적으로 작품과 독자가 만나는 개별적인 현상이지만 작가가 살던 시대와 사회, 작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대, 그리고 독자의 시대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작품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문학 소통은 사회 현상, 문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달관의 자세를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말하고 있다.
- ②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상의 특징을 담고 있다.
- ③ 작가만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줌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2. (가)와 (나)의 화자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 타인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한 일 같아요.
- ② (나)의 화자: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서로 단절된 듯한 답답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 ③ (가)의 화자: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해요.
- ④ (나)의 화자: 저는 단절된 소통에서 벗어나 인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 ⑤ (가)의 화자: 그렇군요. 저는 쉽게 망가질 관계라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3. (가)의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처럼 매우 큰 일이다.  
 ㄴ. 바람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정성껏 맞이해야 한다.  
 ㄷ. 인간관계 속에서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바람은 섬세하게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ㄱ-ㄴ-ㄷ                      ② ㄱ-ㄷ-ㄴ  
 ③ ㄴ-ㄱ-ㄷ                      ④ ㄴ-ㄷ-ㄱ  
 ⑤ ㄷ-ㄱ-ㄴ

4. ㉠의 시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 어디로 불려 가는 것일까. / 바람이 부는데 /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윤동주, <바람이 불어>

- ②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풋대 끝에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유치환, <깃발>

- ③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④ 사방에서는 반가운 눈이 내리고 / 눈송이 사이의 바람들은 / 빈 나무를 목숨처럼 감싸 안았다.

-마종기, <방문객>

- 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5. <보기 1>을 통해 사람들에게 소통된 (가)의 의미를 <보기 2>에 정리하였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보기 1>

1991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글판은 30년이 넘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왔다. 1년에 네 번,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시의성 있고 정감 어린 글귀로 시민들에게 때로는 희망을, 때로는 사랑을, 또 위로를 건네고 있다.

100개가 넘는 역대 글판 중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과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이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 글판’으로 꼽혔다. 두 편 모두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운 요즘 세태에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우고 진지한 만남과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긴 점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결혼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었을 때 아내와 저는 참 많이도 다뤘어요. 사소한 일에도 티격태격했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객> 글판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 생각만 했던 걸 반성했습니다. 그 후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보기 2>

인간관계의 ( a )와/과 상대를 ( b )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 |   | (a) | (b) |
|---|-----|-----|
| ① | 중요성 | 평가  |
| ② | 필요성 | 지적  |
| ③ | 소중함 | 포용  |
| ④ | 황폐함 | 이해  |
| ⑤ | 일회성 | 긍정  |

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문학 소통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정현종의 시인은 개인적인 고통과 시련을 대

지의 탄력으로 밟고 난 다음부터 줄곧 아프고  
외로운 사람의 영혼 속에 따뜻하게 스며드는  
위안의 시를 지향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오세근(문학 평론가), 정현종 시선집 《섬》  
의 발문 중

- ① 정안: 작품을 둘러싼 작가적 맥락을 확인하면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  
해할 수 있어.
- ② 선우: 작가의 개인적인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 시를 썼군.
- ③ 보라: (나)를 패러디해 쓴 시를 누리 소통망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공감 표시를 많이 해 줬어.
- ④ 진우: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어.
- ⑤ 태준: (나) 시가 지하철역에 걸려 있는 것을 보  
고는 감동을 받았어. 나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 같았어.

7. (나)와 관련하여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기>

‘섬’은 사람 사이에 놓인 것으로, 인간관계의  
( ㉠ )이자 ( ㉡ )이/가 되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 |   |      |       |
|---|------|-------|
|   | ㉠    | ㉡     |
| ① | 무의미함 | 소통    |
| ② | 중요성  | 매개체   |
| ③ | 단절   | 연결 통로 |
| ④ | 필요성  | 당위성   |
| ⑤ | 폐쇄성  | 한계    |

8. (다)에 나타난 문학 소통 방법을 이해한 것으로 적  
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에 따라 작  
품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
- ②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해.
- ③ 작품의 구성과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분석하  
며 작품을 해석하기도 해.
- ④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맥락을 알면 작품  
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 ⑤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감상을 공  
유해 보는 것도 좋겠어.

【9~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 정현종, 「방문객」

(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종, 「섬」

9.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내용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음절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나) 둘 다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둘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 ⑤ (가)와 (나) 둘 다 화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0. (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8행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처럼 매우 큰 일이다.
9~13행	인간관계 속에서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바람은 섬세하게 더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4~15행	㉠

- ① 바람처럼 방문객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정성껏 맞이해야 한다.
- ② 바람과 같이 떠날 사람을 이해하고 이별의 준비를 해야 한다.
- ③ 겉으로는 환대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 ④ 남을 흉내 내는 것은 진심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바람을 흉내 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가)에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만나는 사람을 ‘방문객’으로 표현하였으며, (나)에서는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이어지게도 하는 관계를 ‘섬’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작가만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줌으로써 (가)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깨달음과 만남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를, (나)는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와 (나)는 인간관계에 말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달관의 자세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는 둘 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대상의 특징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둘 다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둘 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2. [정답] ⑤

(가)에서 인간관계는 상대방과 대단하고 특별한 인연을 맺는 일이므로, 상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해당하는 일생을 만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섬’이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하다.

③ (가)는 ‘부서지기도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처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주제는 저는 단절된 소통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므로 적절하다.

### 3. [정답] ②

ㄱ. 1~8행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ㄴ. 9~13행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ㄷ. 14~15행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ㄱ-ㄴ-ㄷ의 순서로 나열된 ②가 정답이다.

①, ③, ④, ⑤는 적절한 순서로 나열되지 않았다.

### 4. [정답] ④

㉠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서지기도 쉽고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의 갈피와 그 틈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존재를 말하며, 이런 존재는 상대에게 위로와 위안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위로와 위안의 의미로 사용된 시어는 ④의 ‘바람’이다.

① 이 시의 ‘바람’은 자아의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이자 자신의 괴로움을 성찰하는 계기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시의 ‘바람’은 ‘순정(깃발)’을 흔드는 존재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⑤ 이 시의 ‘바람’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5. [정답] ③

<보기>에서는 ‘그러던 중 <방문객> 글판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 생각만 했던 걸 반성했습니다. 그 후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가)는 문학 소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 소중함과 상대를 ㉡ 포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②,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 6. [정답] ①

<보기>는 작가와 작가가 시를 창작한 배경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작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작가적 맥락의 문학 소통 활동이므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나)는 작가의 개인적인 고통과 시련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쓴 시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라는 (나)를 패러디해 쓴 시를 누리 소통망에 올렸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독자 맥락에서 문학 소통을 하고 있다.

④ (나)는 '-다'의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진우는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소통 맥락과 다르다.

⑤ 태준은 (나) 시를 읽고 감동을 받은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독자 맥락에서 문학 소통을 하고 있다.

7. [정답] ③

(다)에서 '섬'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기도 하는 공간이자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연결 통로를 의미한다. 따라서 ③이 가장 적절하다.

①, ②,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②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생각, 즉 주제를 확인하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활동이므로 문학 소통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①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경험이 다를 수 있으며, 독자마다 작품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작품의 구성과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분석하며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문학 소통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작품 자체를 이해하는 활동이므로 적절하다.

④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작품을 둘러싼 현실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행위이므로 적절하다.

⑤ 독자는 작품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정리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다른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도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9. [정답] ④

(가)에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만나는 사람을 '방문객'으로 표현하였으며, (나)에서는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이어지게도 하는 관계를 '섬'이라는 상징으로 드러내고 있

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가)와 (나) 둘 다 동일한 음절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나) 둘 다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는 '나'라는 화자가 걸으로 드러나 있지만, (나)는 걸으로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 둘 다 화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①

(가)의 14~15행에서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인 바람처럼 방문객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정성껏 맞이해야 한다고 방문객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② (가)의 14~15행에서는 방문객을 바람과 같이 떠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4~15행에서는 걸으로는 환대하는 척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이해와 위로를 바탕으로 상대를 맞이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14~15행에서는 남을 흉내 내는 것은 진심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의 14~15행에서는 바람을 흉내 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서지정보

저자 구수진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8097-2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5.03.07

가격 1,700원

